

# 아시아나항공 매각 '안갯속' 속타는 금호

### 현산 재협상 요구 이후 아시아나 매각 불발·인수금 하락 우려 금호고속, 협상 늦어지면 1300억원 차입금 상환 힘들어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하루빨리 그룹 재건과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금호그룹이 곤경에 처했다.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에 나서면서 매각대금을 받는 시점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인수 작업이 늘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가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할 금호고속은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 요구를 수용했다. 앞서 인수 주체인 현산은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

자고 제안했고, 다음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자료를 내고 현산 측에 구체적인 재협상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그 사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도 증가함에 따라 현산 측이 인수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금호그룹을 둘러싼 지역 경제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 반년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산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인수했다. 하루빨리 매각이 이뤄져 매각대금 3228억원을 받아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할 금호 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 재협상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산이 재협상 조건으로 인수금액을 애초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인수금액이 낮아지면 금호그룹이 받아야 할 매각대금 역시 기존 3228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사다.

특히 금호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은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빌린 상황이다. 다행히 차입금 상환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문제는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상환 자체가 힘들다는 점이다.

또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동산 약화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버스이용객이 줄고, 유스퀘어 입점 업체의 매출 감소로 임대 수입 역시 감소했다.

임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전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주식 총수와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주식 총수는 종전 8억주에서 13억주로 대폭 늘어나고, CB 발행한도는 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번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0.82 (-101.48) ↑ 금리(국고채 3년) 0.861 (+0.020)  
 ↓ 코스닥 693.15 (-52.91) ↑ 환율(USD) 1216.00 (+12.20)

## '더샵 광주포레스트' 평균 47.75대 1 경쟁률



### 전타입 1순위 청약 마감

포스코건설은 광주에 들어서는 '더샵 광주포레스트' 아파트 1순위 청약에 2만 8077명이 신청해 평균 47.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청약은 588가구(특별공급 제외)로, 최고 경쟁률은 358.0대 1을 기록한 131㎡A 타입이 기록됐다. 84㎡A 타입도 8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단지가 광주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흥-각화권역에 속한 데다, 지역 내 포스코건설 더샵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경쟁률 역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에서는 2004년 입주한 '봉선동 더샵' 이후 해당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졌고, 지난해 9월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가 최고 616.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876-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총 7개동 규모로 아파트 907가구(전용 84-131㎡)와 주

거형 오피스텔 84실(전용 59㎡)이 함께 들어선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29일-7월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전매가 가능한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은 6월 10-16일 까지 '더샵 광주포레스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6월17일, 정당 계약은 18일-19일 진행된다. 중도금(분양가의 50%)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브랜드 리뉴얼 이후 광주에서 분양하는 첫 사업지로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최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청약이 진행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문의가 이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1661-9744.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보해 '앞새레터' 소비자와 통하다

### 창립 70주년 이벤트 5월 한달 1000건 접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앞새레터' 이벤트에 지난 달 1000여건의 사연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새레터는 소비자가 앞새주와 보해양조에 관련된 사연을 염서에 적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보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연을 발굴해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500여건이 접수된 이후 5월 1000여건이 접수될 정도로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님과 연관된 추억부터 앞새주 모델 송가인 팬들의 관심까지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다.

40대 여성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홀로 4남매를 키운 어머니와 앞새주에 얽힌 추억을 전했고, 서울의 한 50대 소비자는 송가인에 대한 관심이 앞새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내오기도 했다. 보해는 사연을 보내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로봇청소기와 미니 공기정정기, 지역 특산물 등을 전달하고, 분기별 베스트 사연 선정 주인공을 대상으로 송가인과 함께하는 팬미팅 행사도 기획 중이다. 한편 앞새레터 이벤트는 올해 12월

까지 계속된다. 광주·전남 500여개 업소에 비치된 앞새레터에 앞새주와 보해양조, 송가인과 우리동네 자랑 등을 주제로 손편지를 작성해 업소 우편함이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전남 농가 64% 농산물 판매액 1천만원 미만

### 역대 부농 광주 1.2%·전남 3.2%

전남 농가 5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지난해 농산물 판매수익이 1000만원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규모가 1000만원 미만이었다는 농가 비율은 광주 80.7%·전남 64.1%로 나타났다.

지역 전체 농가 수는 광주 1만2387가구·전남 14만3798가구 등 15만4036가구로, 농산물 판매액 1000만원을 못 번 가구는 각각 8260가구, 9만2234가구로 집계됐다. 1000만-1억원 미만 판매한 농가 비중은 광주 18.1%(1856가구), 전남 32.6%(4만 6893가구)로 집계됐다.

농업인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인 영향으로 자가수급 등을 위해 농산물을 아예 판매하지 않은 농가도 광주 678가구·전남 1만166가구에 달했다.

농산물을 1억원 이상 판매한 농가는 광주 1.2%(122가구), 전남 3.2%(4671가구)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전체 100만7158 농가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3만5370가구가 '역대 농부'로 꼽혔다.

1억원 이상 판매한 농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4.9%)이었고, 제주(4.3%), 경기(4.2%), 경북(3.6%), 충북·경남(각 3.5%), 충남(3.3%)이 뒤를 이었다. 전남과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각

각 8번째 14번째를 차지했다. 농축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광주 32.6%(3300가구), 전남 41.2%(5만 9200가구) 등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비중이 광주 31.7%(3200가구), 전남 20.6%(2만9600가구)로 많았다. 이외 도매시장(광주 10.3%·전남 2.9%), 산지공판장(광주 7.7%·전남 6.5%), 수집상(광주 3.6%·전남 13.3%), 정부기관(광주 3.0%·전남 4.1%), 농축산물 소매상(광주 1.3%·전남 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 농업인구는 29만7890명으로 전국 농업인구의 16.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50세 미만이 20.1%, 50대와 60대가 각 16.3%와 25.4%, 70세 이상은 38.2%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0.7%다. 2018년 49.2%에서 1.6%포인트 늘었다.

광주는 농가와 농업인 수가 차지한 비율은 각 1.7%(1만2387가구)와 1.6%(2만 4101명)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7.3%로 10명 중 4명 수준이었다.

전남 여가 수는 1만8680가구(2.5%), 여민 수는 4만2060명(2.4%)으로 조사됐다. 50세 미만이 29.4%를 차지, 가장 비중이 컸으며 60대(25.7%)와 70세 이상(23.2%), 50대(21.7%) 순이었다. 40.9%가 여업에 전업하고 있으며 34.0%와 25.1%는 바다와 농사일 등 2가지 이상을 하거나 1가지를 겸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영암군 명품 농특산물전

### 18일까지 식품매장서 진행

(광주신세계가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분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영암군 명품 농특산물전'을 진행한다. 영암군 명품 농특산물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고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영암군과 광주신세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영암달마지쌀

골드'와 '케이 멜론' 등 영암 대표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판매 상품은 대봉감 말랭이와 무화과로 양갱·잼·즙 요거트 등을 만든 가공식품, 유기농 배, 방울토마토, 전통 된장, 국화, 안개꽃 등이다. 영암 '황토 케이 멜론' (1개당 9900원)은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재배되고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와 영암군은 당일 행사 상품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 쌀 100g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